



땅그랑코가 신년행사 열어... 힘찬 2020년을 다짐했다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Vol. 26



[신년사] 안창섭 재인니한국봉제협회회장

2020년 희망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회원사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어려움으로 우리 봉제기업은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과거 30여년전 우리 봉제기업은 인도네시아 진출에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낙후되고 척박한 인도네시아에 우리 봉제기업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점점 우뚝서

게 되었고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근성깊은 DNA인자가 인도네시아에서 그 빛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격변하는 인도네시아 기업환경과 격동하는 세계시장의 변화로 우리 봉제기업은 최근 점점 더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과거의 빛나는 활동을 다시 일으키자는 다시 코가라는 슬로건과 비상 코가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봉제기업의 힘을 하나로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이슈로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끈끈하게 버텨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욱 더 강해지는 근성을 가진 한 민족입니다. 회원사 모두 하나되는 마음으로 상호 협력하

고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경쟁력은 나 하나가 아닌 우리가 된다면 그 힘은 더욱더 강해 질 것입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회원사 모두의 튼튼한 결속력으로 강한 코가를 만들어 격동하는 현 상황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더 강한 코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이슈입니다. 회원사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고 튼튼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재인니 한국봉제협회는 회원사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동 “인도네시아 계열사 주식 35억원에 추가취득...지분율 100%”



국동의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35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국동은 인도네시아의 봉제생산 계열사 (PT BATANG APPAREL INDONESIA)의 주식 3천주를 약 35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9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공시 당일이다. 국동은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수출 증대로 인한 자회사 생산설비 확충” 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년사]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인도네시아 한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庚子)년 새해를 맞이하여 수마트라 북단에서 파푸아 남단까지 곳곳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한인 동포사회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웃음이 넘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및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2019년에는 국내외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어 동부 칼리만탄 신수도 개발 협력 MOU 서명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타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현대자동차 진출 투자협약이 체결되어 2021년 말부터 연산 25만대의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올해부터 공장 건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지난 9월 버스를 타고 5박 6일 동안 자카르타를 출발하여 짜레본, 브레베스, 솔로를 거쳐 수라바야까지 1,000km를 횡단하는 ‘뜨꼬 낭 자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자바섬 곳곳에 한류를 홍보하는 공공

외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4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출범한 조코위 대통령의 제 2기 행정부는 인적 자원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내걸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20년은 최초의 한인인 장윤원 선생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자카르타에 첫발을 디딘 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에 대사관은 한인회 그리고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의미있는 ‘한인 이주 100주년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한인 이주 100주년 행사’를 계기로 우리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고, 한민족간 “Maju Bersama”의 관계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대사로 부임한 2018년 첫 해 롬복 지진과 빨루 지진을 겪었고 지난 8월에는 자카르타 지진과 자바섬 대정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입니다. 재외국민보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입니다. 대사관은 한인 동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김창범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사관에서는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난 9월부터 안전전자공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동포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발리 분관이 2020년 하반기 중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발리, 롬복 여행시 좀 더 안전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금년 4월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극 동참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는 쥐의 영민함과 근면함으로 우리 동포사회가 인도네시아에 더욱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과 직장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김창범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 4PL
- 항공, 해상운송
- 내륙운송
- 통관대행
- 물류 컨설팅
- 물류 OS
-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Telp. : +62-21-797-6237
 Jl. MT. Haryono Kav. 62, Fax : +62-21-797-6015
 Jakarta, 12780, Indonesia E-mail : kor@f1-logix.com

2019 KOGA 총회 열려



구립 26일 자카르타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KOGA 총회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새롭게 KOGA

부회장으로 임명된 김귀식, 서광호 부회장을 비롯한 각 지역 KOGA 부회장과 배도운, 박재한 전임회장을 비롯한 상임사 대표와 사무국 요원이 각각 참

석했다. 안창섭 KOG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있는 최저임금 관련해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전

달하면서 관련된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내년도 KOGA 사업 및 계획안에 관해 이규백 수석부

회장의 발표와 재정을 맡은 강원구 부회장의 전년도 예산안 집행 및 새해 예산안 편성 및 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KOGA와 협력하여 세미나 등 여러 활동을 해 온 생산기술연구원 조병휘 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12월을 끝으로 한국으로 귀임된 생산기술연구원 조병휘 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KOGA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 서로 상생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영미 노무관 후임으로 부임한 이준호 신임 노무관도 참석해 상견례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땅그랑코가 2019년 연말 송년회 열려 신임회장 서광호 PT.KEMKWANG사장 선출,



구립 29일 재인도네시아 땅그랑 봉제협회(회장:서광호)는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송년회를 땅그랑소재 모던랜드CC와 땅그랑 피낭시아 소재 체어맨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땅그랑반튼한인회 채만용 회장을 비롯해 땅그랑코가의 전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를 되돌아보며 2020년 새해에는 회원사 모두가 상호

상생하는 해를 만들자는 결의를 했다.

땅그랑 봉제협회는 전임 이재엽사장의 뒤를 이어 PT.KEMKWANG의 서광호 사장이 선출되어 2년간 땅그랑 봉제협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서광호 신임 땅그랑 코가회장은 현재 땅그랑반튼한인회 수석부회장의 직무를 맡아 지역한인동포를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직접 실천하는 봉사를 해오고 있다.

땅그랑 코가는 지난 2009년 창립되어 현재 12년차 그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지역 봉제기업을 위한 단합과 정보교류 및 봉제기업의 현안에 대해 합



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 땅그랑 반튼한인회 채만용회장은 지역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있는 우리 봉제기업을 위해 한인회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했으며 땅그랑 코가를 위한 발전기금 3,000만 루피아를 전달했다.

높은 임금상승과 기업환경의 변화로 점점 어려워져가는 우리 봉제기업은 땅그랑코가와 같이 각 지역별 상호 단합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슬기와 지혜로 극복해 인도네시아 봉제기업 진출 3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제 2의 도약에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조꼬위 만나 “인니 새 수도에 투자”

보르네오섬 동갈리만판 신수도 건설에 투자계획 논의

소프트뱅크 그룹을 이끄는 재일교포 3세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새로 건설하는 수도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꼬위 대통령과 루훗 빈사르 뽀자이판(Luhut

Binsar Panjaitan) 해양·투자 조정장관과 면담 후 “신수도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잠재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스마트시티, 최신 기술, 깨끗한 도시와 인공지능(AI)에 관해 논의했다”며 “그것이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도 조꼬위 대통령과 손 회장이 동갈리만판의 신수도 투자 잠재력과 다수의 개발사업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꼬위 대통령은 자바섬에 인구와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특히 자카르타가 수해 등 재난에 취약하다며 수도를

보르네오섬 동부 깔리만판으로 이전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새 수도 건설을 시작해 2024년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한다. 건설비용은 대략 330억 달러(40조원)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새 수도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 최우수작을 선정했으며,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설계부터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조꼬위 대통령의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수도 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손 회장이 조꼬



위 대통령을 만나 직접 투자 가능성을 논의한 것처럼 일본과 중국이 뛰고 있기에 참여 기회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한국도 초기에 더 뛰어야 한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온다.

손 회장은 작년 7월에도 조꼬위 대통령과 만나 “5년간(승차공유업체) 그룹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20억 달러(2조 3천67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

경제조정부, 중부자바주 끈달 등 3개소 경제특구로 지정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6일 동부자바주 말랑 싱하사리, 중부자바주 끈달, 북부 술라웨시주 리꾸빵 등 3개소를 경제특구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싱하사리 경제특구는 관광과 창

조·디지털 경제, 리꾸빵 경제특구는 리조트 및 MICE(회의, 시찰, 국제회의, 전시회·박람회) 시설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끈달 경제특구는 섬유와 가구, 식음료, 전자기기 등의 수출 지향 특구로 개발한다. 국내 경제특구는 15개소가

되었다. 현재 이 가운데 11개소가 가동 중이다. 15개소의 누계 투자액은 총 22조 2,000억 루피아에 달하며, 8,686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다.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원단 샘플 '지적소유권' 있다

日·伊·중국산은 전액 지불하고 한국산만 공짜 개념
수십 년 관행 하도급법 위반 지적 '甲' 질 폐단 바뀌어야

국산 원단 샘플 차지 공짜 관행의 불공정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본격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불공정거래 관행의 문제뿐 아니라 지적 소유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란 점을 수급자가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류 벤더나 패션브랜드, 해외 바이어들이 일본과 이탈리아산은 물론 중국산 원단 샘플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샘플 비용을 전액 지급하면서 유독 한국산 원단 샘플에 대해서만 공짜로 취급하고 일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엄격히 따져 공정거래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단 샘플을 제작하는 데는 제작 회사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을 바탕으로 원사 구매와 제·편직·염색 가공 과정의 비용 발생과 DHL의 택배 비용까지 원단 업체가 부담해 이로 인한 비용 발생이 업체마다 작게는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지만 이 모든 비용을 원단 업체가 뒤집어쓰는 잘못된 관행이 수십 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원단 샘플 하나하나에

각사의 노하우와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 원사 선택에서부터 직물 조직, 디자인, 염색 컬러 선택 등 창작하는 과정의 연속이란 점에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당연히 인정해야 할 지적재산권 소유 개념을 원단 업체나 의류 벤더, 패션 브랜드, 해외 바이어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류 벤더와 패션 브랜드, 의류 바이어들은 원단 샘플을 요구하면서 샘플은 오더 결정 과정의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여기고 비용을 주지 않는 데 대한 하등의 부담이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공짜 개념이 깊숙이 박혀 있는 폐단이 수십 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새해부터는 원단 업체가 거래선으로부터 샘플 작업 지시서를 발부받아 제작한 샘플 원단에 대해 정상적인 비용을 달라고 청구해야 하며 의뢰자인 의류 벤더나 패션브랜드, 해외 바이어들도 샘플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개념 정립과 함께 샘플이 지적소유권과 직결된다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재훈의 세무상식

정부령 78호(PP No.78 /2019) 특정 사업 분야 및 또는 특정 지역에 투자시 소득세 조세혜택(Tax Allowance) 개정



김재훈 대표

투자활동의 실현 가속화 촉진, 경제 성장,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 균형발전, 산업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소득세 조세혜택(Tax Allowance)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령을 개정하였다.

정부령 78호는 지난 2019년 11월 13일 공포되었고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번에 개정된 정부령 78호는 종전 정부령9호(PP No.9 / 2017)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면서 조세혜택 대상이 종전 145개에서 183개 (lampiran I 166개, lampiran II 17개)로 늘렸고 OS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종전 정부령과의 다름점으로 볼 수 있다.

기준과 조건은 PP No.78/2019를 구글등에서 검색하여 lampiran I, II로 확인이 가능하며 상기 I, II의 분류표로 업종, 업종분류번호, 제품범위, 지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전제 조건은 대규모 투자 또는 수출 목적의 투자, 높은 수준의 고용 창출, 높은 수준의 로컬 콘텐츠 사용이 전제 조건이라 하겠다.

조세혜택은 아래와 같다.

- 종전 규정을 유지하여 토지를 포함한 유형 고정 자산 형태의 투자에 대해 총액의 30%까지 순 수익에서 감면, 생산초기부터 연간 5%씩 6년간 감면 받을 수 있다.

금번 개정령은 유형자산이 신규자산이고(다른 나라로부터 완전히 재배치 되는 경우 제외) 기본허가, 투자허가, 투자등록, 또는 사업허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납세자가 직접 소유하고 주요사업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 종전과 같이 감가상각은 가속상각이 인정된다.

- 종전과 같이 외국인 주주 배당 세율은 10% 또는 조세협정 세율 중 보다 낮은 세율 적용된다.

- 종전 규정을 유지하여 이월결산금 공제기간 연장은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이지만 적용 연장 기한에 대해서는 일부 개정되었다.

신청절차는 OSS 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상업생산 이전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NIB(Nomor Induk Berusaha)를 신청하는 시점 또는 OSS에서 신규 사업허가를 발급받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경제개발구역(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에 대한 조세혜택, PP Nomor.45 2019에 따른 Tax Holiday혜택, PP Nomor.45 2019에 따른 노동집약산업에 대한 조세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끝>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l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차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대만 의류 위탁 생산 업체, 인니 공장 건설에 용지 확보

대만의 의류 위탁 생산 업체인 '에플라 텍스타일(Eclat Textile Co)'은 최근 인도네시아 기업과 30년간 토지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용지에 공장을 마련해 2021

년부터 단계적인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인도네시아 기업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계약 금액은 3,450억 루피아로 부지 면적은 24만 3,200평방미터다. 건물 건설 및 설비

조달을 포함한 총 투자액은 1억 7,000만 달러에 이른다.

공장은 3단계로 나누어 건설하고 직물에서 의류 제품까지 일괄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 생산 라인은 총 120개 마련한다. 의류의 생산 능력은 종



래보다 약 20% 늘어날 전망이다. 3년 내 풀가동을 목표로 한다.

에플라 텍스타일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건설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주요 생산 거점으로 하고 있는 베트남에서의 인력난과, 향후 예상되는 생산 능력 부족에 대한 대응 2가지를 꼽았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인도네시아는 디자인 연구소로서 그간 코파의 힘,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달로그,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깎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달로그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2020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대사관, 2020년 한인동포 신년회 개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대사 김창범)은 3일 대사관에서 150여 명의 한인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개최했다.

신년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표창 전수식 후 김창범 대사, 임성남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 박재한 한인회장의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창범 대사는 신년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의 정부와 삼일운동 100주년의 뜻깊은 해였고 인도네시아 총선 및 대선, 조코위 2기 출범과 함께 한-인도네시아 양국관계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조코위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최종타결, 동부갈리탄 신수도 이전 협력, 현대자동차 투자협약 등 양국간 전략적 동반관계가 더욱 내실화되는 진전의 한해였다.'

또한 '2020년은 한인사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서 한인회에서 기획하고 있는

한인사 100년 책자 발간 및 다양한 행사에 대사관도 힘을 보태겠다. 인니국민들에게도 한발짝 더 다가가는 'Maju bersama'의 한 해로 양국 관계가 굳건해지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김 대사는 '올해에도 재외국민보호와 권익신장에 최우선 노력 하겠으며 오랜 숙원이었던 발리 분관 신설을 통해 안전한 발리여행이 될 것을 기대한다. 4월에 실시될 21대 총선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 아세안대표부 등과 함께 팀코리아 협업으로 많은 성과와 한인사회에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해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 며 신년사를 마쳤다.

이날 2019년 한 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와 현지 사회에 기여한 한인동포에게 표창장을 전수했다. 표창장은 국기원 소속 신승중 (태권도 사범)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총 24명에게 수여됐다.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젓가락 예찬

조그마한 몸뚱이 위에 철길 같아 보이는 긴 두 줄이 있어 그게 무어냐고 물으니 젓가락이라 하더라. 그림을 잘 그리는 어떤 사람이 한 스님의 인상을 스케치해서 준 그림 이야기다. 몸뚱이 보다 큰 젓가락? 팔보다 긴 젓가락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다. 젓가락질을 잘해서 손재주가 많다? 한국인의 섬세함과 정교한 기술력을 자랑삼아 표현할 때 쓰는 자찬(自讚)이다. 예전에 중국 영화에 등장했던 긴 젓가락은 공격과 방어의 무기로도 쓰였다. 젓가락 위에 접시를 얹어 돌리는 것은 재주에 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국인이라고 특히 젓가락질을 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는 스님 일행과 식사를 하면서, 아니 공양을 하고는 설거지 이야기로 이어져서 대화가 만발했다. 음식 만들기는 재미있는데 식후에 설거지는 귀찮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요리라고는 라면 끓이기와 계란 스크램블 정도가 실력인 나는 별로 할 말이 없어 설거지감을 줄이려 노력한다고 했더니 예를 들어보라. 계란 스크램블은 반숙 프라이를 하다가 뒤집기에 실패해서 으깨 버린 것이지 처음부터 의도했던 작품은 아니다.

절에서는 발우 공양을 한다고 들었다. 발우(鉢盂)라는 목기 밥그릇으로 식후에 밥풀까지 남김없이 씻어 먹고는 깨끗이 닦아 개인장구로 관리한다. 마치 사람들이 자기 칫솔이나 안경을 관리하듯이... 일수련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 하고,

밥 먹은 그릇에 송충을 부어 먹는 일은 당연했다. 그 그릇에 커피를 부어 마시면 안 될까? 이것을 질문하고 의견을 들어 보았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는 안하겠다는 사람과 그러면 무슨 맛으로 먹느냐? 커피는 커피 잔에 먹어야만 한다는 사람... 분분하고 다양했다.

나는 빈 밥그릇에 물이나 국을 덜어, 식혀 먹는 경우가 흔하다. 뜨거운 것을 후후 불며 기다리느니 부으면 금세 식어, 바로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식후에 나오는 커피믹스 한잔은 너무 달고 약간 양이 많다. 절반정도를 빈 밥그릇에 덜어 마시고 나머지는 컵에 그대로 남긴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먹을 수 있게 하려는 배려다. 또, 설거지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커피는 커피 잔에, 와인엔 와인 잔에, 막걸리는 막걸리 잔에 먹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 있는가? 이들을 빈 밥그릇에 부어 마시면 안 된다는 법은 어디에 있는가? 밥그릇은 빵이나 스테이크, 피자나 스파게티를 즐겨 먹는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숟가락, 젓가락도 나라마다 제각기 모양이 다르지 않은가. 아직도 맨손으로 집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리 저리 해 오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습(習)이다. 그래서 문화권이라는 것이 형성된다. 시간이 더 흘러 새로운 도구나 음식이 생기고 생활양식이 달라지면 지금의 습이 어색해져서 고쳐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젓가락 스님의 이야기는 어느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이다. 음식을 젓가락으로 먹고 있는데 옆에서 포크와 나이프를 써야 하는 것이라며 왼손에 포크로 찌고 오른손에 나이프로 자른 후, 다시 오른 손에 포크로 찌러(?) 먹으라 하더라. 젓가락이 편하다고 했더니 젓가락이 몸통보다 크게 클로즈업 된 캐리커처를 그려 주더라는 것

팔보다 긴 젓가락 이야기는 일찍이 들어서 알고 있다. 팔보다 긴 젓가락으로 집은 음식을 제 입에 넣지 못해 애태우는 사람들이 사는 곳과 서로 먹여주며 즐겁게 먹고사는 이웃이 있었다니 팔보다 긴 젓가락은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



조기조 박사

는 도구다. 문제는 손이나 포크, 젓가락이 아닌 것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나온 이래, 세계는 첨단정보기술을 다투어 개발하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유익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고 인락하게 살고자 하는 것 일게다. 그렇다면 정보기술이 바로 우리가 먹고 살 젓가락이다. 정보기술 젓가락으로 아동바등 내입에만 넣으려 한다면 거기가 바로 동물농장이고 실낙원 아니겠는가?

장수촌 오키나와에는 '하라 하치부(はらはちぶ)' 라는 말이 있는데 '허리띠를 풀기 전에' 라는 뜻으로, 배가 부르기 전에 젓가락을 놓는다고 하니 가늘고 긴 목과 다리만큼이나 훌쩍한 배를 유지하는 천년 학(鶴)의 지혜와도 닮았다. 숟가락이나 포크 대신에 젓가락으로 느리게 식사하는 것도 상지(上智)라 싶다.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 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icho@uok.ac.kr
(82) 10-9080-2449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Jl. Mahoni 1 Multiguna Niaga Lippo Cikarang No. 3, Sukaresmi
Cikarang Selatan Kab Bekasi - Jawa Barat, Indonesia
Telp. : +62 21 8990 4038 / 4037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한세엠케이 · 드림 김지원 대표이사 취임

1월 1일 취임식...조직 재정비 · 드라이브 전략 시동
“내수 시장 확대...글로벌 패션 기업 성장 이끌터”



▲ 김지원 대표이사

국내 대표적인 패션 기업 한세엠케이와 유아동복 전문 기업 한세드림의 김지원 대표이사가 1월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개시했다.

김지원 신임 대표는 한세엠케이에서 대표직으로, 한세드림에서는 각자대표로 선임됐으며, 1월 1일 취임식과 함께 새로운 수장으로 공식 부임했다.

김 대표는 이화여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세에스24 홀딩스 자회사인 1위 도서기업 에스24를 거쳐 한세엠케이, 한세드림에서 총괄 임원을 역임했다. 한세엠케이에서는 2017년 한세실업이 한세엠케이를 인수한 이래 마케팅, 경영지원, 해외사업 등을 아우르는 중역을, 한세드림에서도 마케팅과 해외사업을 총괄하며 회사를 성장시켜 왔다. 한세엠케이 신임 대표로 선임되며 “내수는 물론, 해

외 K-패션 시장 확대를 이끄는 혁신 기업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세엠케이의 TBJ, 버커루, 앤듀, NBA, NBA키즈 등 캐주얼 및 스트리트 패션부터 PGA TOUR, LPGA골프웨어 등 스포츠웨어 분야까지 사업확장 및 수성을 진두지휘해 온 인물이다. 24년 역사의 토종 패션 기업 임원으로 국내시장을 리드하는 것은 물론, K-패션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노력에도 앞장섰다.

한세엠케이는 김 대표 체제 하에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이를 위한 조직 구성은 물론 사업 전열 재정비를 마친 상태다. 먼저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비용 효율화를 위한 단행

및 디지털 경쟁력 확보 전략을 함께 가져간다. 일찍이 도입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RFID 시스템을 비롯해 ERP, CRM 구축에도 힘을 쏟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보다 젊고 혁신적인 첨단 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또 에스24 자회사인 패션 전문몰 아이스타일24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강화, 그리고 무신사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 증대로 보다 확대된 매출 효과를 거둘 예정이다.

해외 진출도 가속화 한다. 김 대표는 ‘글로벌 한세엠케이’ 전략 하에 해외 매장 수와 진출 거점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내부 체질개선을 통한 이익률 강화와 기존 실적부진을 벗어날 묘책도 본격

가동한다.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실한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세드림 각자대표를 맡아 “유아동복 시장 1위 수성 및 글로벌화를 이끌 것”이라는 김 대표는 단기간에 국내 유아동복 1위로 자리매김한 모이몰튼의 성공적 런칭과 함께 기존 브랜드들의 시장 확대를 이끌어 온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대표직에 올랐다. 김 대표는 한세드림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2년 만에 2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파격적인 성장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김 대표의 취임으로 한세드림은 새로운 성장 국면에 접어

들 전망이다. 소비자들과 업계의 탄탄한 지지를 얻고 있는 모이몰튼, 컬리수, 플레이키즈프로, 리바이스키즈 등 각 브랜드들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2020년에는 더욱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표는 한세드림의 국내 유아동복 시장 1위 수성은 물론, 해외 진출 국가도 늘리며 글로벌 비즈니스 안착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새롭게 선보인 모이몰튼 토들러 라인의 시장 안착과 더불어 지난 2017년 런칭한 리바이스키즈의 매장 증대 및 시장 점유율 확대도 순조로울 전망이다.

한세드림은 뛰어난 경영능력과 기업혁신에 밝은 김 대표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임동환 대표가 만난 투타 경영으로 시너지 극대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국제섬유신문

지난해 인니 섬유 업계, 수입 과다로 공장 폐쇄 잇따라

지난해 인도네시아 섬유업계는 수입품의 증가로 인해 많은 대형 공장이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한편 해외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에 뒤쳐져 미국 시장 등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합성섬유생산자협회(Apsyfi)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의 섬유 수입량은 90만 톤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가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섬유업체협회(API)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섬유 공장 9곳이 폐쇄됐으며 영향을 받

은 직원 수는 2,000명 이상이 었다.

API의 아데 회장은 이러한 섬유 산업의 현황에 대해 “비상 사태”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9월에는 단기 조치로 수입 섬유 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무부는 원사 및 섬유 직물 등 섬유·섬유 제품(TPT) 121개 품목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했고, 세관 당국은 불법 수입을 적발하고 수입 허가를 철회하는 등의 대응을 진행시켜 왔다.

수출은 국내 섬유 산업이 베



트남과 방글라데시 등 신흥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을 이겨 내지 못했던 것이 영향을 끌었다.

수출액은 2018년에 2008년

대비 30% 증가한 133억 달러였지만 중국 2,767억 달러, 방글라데시 671억 달러, 베트남의 398억 달러에서도 크게 뒤쳐졌다.

PT. BOSUNG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더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2015~2019년 연평균 88% 성장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는 국내 디지털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IT 대기업 구글(Google)과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컨설팅기업 배인앤컴패니(Bain&Company)가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는 '2019 동남아시아 경제(economy Southeast Asia 2019)'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부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88%를 기록했으며 총거래액(GMV)은 210

억 달러였다. 구글 인도네시아의 랜디 유수프 운영이사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는 대규모 자금 지원과 국내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데카콘 기업 오픈마켓 토코페디아(Tokopedia)가 작년 3분기 전자상거래 사이트 중 가장 많은 방문수를 기록했다. 월평균 방문수가 6천590만명으로 전체 시장점유율의 25%를 기록

했다. 그 뒤를 이어 부칼라팍(Bukalapak), 라자다(Lazada), 블리블리가(Blibli)가 각각 4천280만명, 2천790만명, 2천130만명 순이었다. 한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최근 전자상거래 업자와 오프라인 업자가 동일한 기준에서

경쟁을 치를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부령 '2019년 제80호'를 발효했다. 특히, 세금 납부 규제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전자상거래 업자들도 오프라인 업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이는 소규모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세실업 오너 2세 김익환 대표, 부회장 승진



▲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한국산 수입 규제 증가 (PG) [제작 조혜인, 최자윤] 합성사진

패션기업 한세실업은 3일 김익환 대표를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조희선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김동녕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의 차남인 김 부회장은 공장

선진화와 친환경 경영을 통해 한세실업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사장은 지난 2017년 한세실업에 입사해 갭(GAP Inc) 고객사를 담당해왔다. 이번 인사에 따라 한세실업은 김 부회장과 조 사장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수출 1부문을 맡았던 김경 전무는 부사장으로, 주상범 전무는 원단 전문 기업인 칼라앤터치의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한세실업은 미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8개국에 23개 법인을 운영하는 패션 전문기업이다. 앞서 한세그룹은 김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의 막내딸인 김지원 씨를 패션기업 한세엠케이와 유아동복 기업 한세드립의 대표로 신규 선임하며 2세 경영에 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

해킹 걱정까지 없어야 진짜 보안입니다

HS View의 영상 데이터는 IDC(Internet Data Center)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합니다

SK의 기술과 하나스타의 노하우로 완성된 클라우드 영상보안 시스템 - HS View

HS View를 놓으세요
이제 마음 폭 놓으세요

HS View. 이런 사업장에 권합니다!

- 보세 구역내의 수출입 통제 관리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곳
- 도난/사고 예방과 증빙을 위한 고품질 영상 데이터가 필요한 곳
-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곳
- 프랜차이즈, 콜센터 등의 다지점 사업장
- 합리적인 가격의 신규 설치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

HS View. 이것이 다릅니다!

일반 CCTV	VS	HS View
잘못 해킹으로 인한 영상노출 위험	보안/기술력	전문 방화벽이 작동하여 해킹의 위험에서 안전
본체 또는 녹화장비	영상저장	IDC 클라우드 서버
고가의 초기구축비용 유지보수비용	비용	구축비용 없는 월과금 방식

하나스타의 새로운 스타!
HS 뷰 출시!

Cloud CCTV
HS View

2019년 가입 고객을 위한 하나스타의 특별한 혜택:
설치비 무료 + 월 사용료 최대 20%할인 + 무료 테스트 3개월 제공

영업문의: 0811 9936 516 / 0811 805 606
기술지원: 021 4000 2436-9

www.hanastar.net.id

CWI ERP

한국의 전문개발업체와 함께 개발한 **SaaS 기반 ERP**

세관 Inventory, 경영분석 지원까지 **다양한 패키지**

효율적 회계 관리

회계 자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정확하고 효율적 회계 관리가 됩니다

정확한 자재 관리

IT INVENTORY(보세 구역 전산 자재) 시스템 요구 사항을 부합하며 자재 관리가 편리해 집니다.

복잡한 ERP, CWI ERP로 해결하세요!

- 까다로운 인도네시아 세관 승인 획득완료
- 중/소규모부터 메이저급 봉제회사까지 사용가능한 Customizing
- 프로모션 기간 무료사용, 분할납부 등 다양한 가격 옵션 제공

www.cyberworld.co.id

PC현대 구매가격으로 세관 IT Inventory 시스템 사용 가능
2019년 특별 프로모션

www.cyberworld.co.id
데모 사이트

적지 적소성

CWI ERP로 자료 관리를 하여 적지 적소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 분석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 분석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견적 요청 / 데모 신청
sales@cyberworld.co.id

재외국민 대상 영사서비스 개선 사항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은 지난해 개선된 영사 민원서비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가 늘었다. 재외국민을 위한 온라인 민원포털 '영사민원 24' (<https://consul.mofa.go.kr>)가 개시되어 쉽고 빠르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들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집에서 인터넷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영사민원24'는 △재외공관 발급 민원문서에 대한 사실 확인, △온라인 또는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신청한 민원 처리현황 확인, △공관별 맞춤형 민원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안내 등 다양한 영사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가 기존 14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되어 해외에서 공문서

사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외교부는 우리국민이 인터넷 사이트(<https://www.apostille.go.kr>)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14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년도에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초·중·고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등 13종 문서를 대상으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추가됐다.

※ '아포스티유'란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증명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프랑스어로 '추신'이란 뜻

2.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지역이 늘었다.

별도 시험 없이 우리 면허증을 외국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이 가능한 나라는 135개국이며, 미국 루이지애나주 및 UAE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을 신규로 체결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3개 국가에서는 우리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었다.

※ 2019.10.21.부터 전 재외공관을 통해 영문 운전면허증 신청 가능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오만,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 33개국이다.

3.청년들의 해외 체험 및 진출 기회 확대
2020년 1월 현재 24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였고, 브라질, 룩셈부르크 등 7개국과 신규 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 협의를 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로 통상 1년간 18~30세의 우리 청년들이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 외국어 학습, 문화·현지 생활양식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일시적으로 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금년도에는 아세안 국가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을 통해서도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 동포기업에서 인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2019년 한 해,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300명의 청년들이 해외 동포기업에서 인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다. 취업 준비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상시모집도 시작했다.

4.찾아가는 영사서비스 강화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순회 영사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현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순회영사 민원처리 건수는 약 7만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여권, 공증, 가족관계등록 등 다양한 영사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고, 병역, 국적, 세무 등 관련 전문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5.해외 입양인 가족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해외에서도 가능

2020년부터 재외공관에서 해외 한인입양인의 유전자 채취공통이 가능해졌다. 가족 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은 14개 해외 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6.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여권 서비스 개선
우리 여권으로 188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Henley Passport Index). '2019년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이 공동 2위를 차지하여 우리의 여권 파워가 세계 최상위권임이 증명되었다.

외교부는 여권의 위변조 방지 및 보안성이 강화된 고품질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2020년 새로 도입하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계속 고해갈 예정이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여권 소지자가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출입국 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휴대전화 문자로 미리 통지(문자 수신에 대한 민원인 사전 동의 필요)하여 주는 서비스 실시를 시작하였다.

동 서비스 시행 이후, 인천공항 등에서 '여권 유효기간 부족' 사유로 발급된 긴급여권 발급 건수가 2018년 하반기 4,328건에서 2019년 하반기 2,745건으로 대폭 감소하여 사전알림 서비스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모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여권이 발급된다.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해외여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본인 이 희망할 경우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 점자여권 :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볼임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지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이를 통해 해외 일부 국가에서 △거주지 등록, △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은행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는 「국민외교 UCC공모전」을 통한 국민의견을 정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PT. PUTRA PILE INDAH

인조 모피

인도네시아 경력 30년

생산 판매 LUXE FUR

MORE REAL

MORE SOFTNESS

MORE ECO FRIEND

PT. PUTRA PILE INDAH

Bekasi Int' | Industrial Estate Block C5-1, Jl.Raya Cibarusah ,Lemahbang-Bekasi Indonesia 17550.
Tel. : 62-21-8972255 Fax. : 62-21-8972371
e-mail : pippi@cbn.net.id
Contact Person: Mr Seung Jo, Lee / Mr Sunardi (Mobile Phone: +62-812-128-8816/+62-813-1984-6595)

부 정책에 적극 반영한 사례다.
7.해외에서의 국내 금융업무 처리가 편리해졌다.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가 시작됐다. 그간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하여 금융 업무 처리 시, 은행측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따른 시간 소요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였는데, 상기 서비스를 통해 금융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국내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주일본(대), 주LA(총) 대상 시범 실시, 금융결제원 및 국내 14개 은행 참여
8.양질의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외국민등록법」 개정 재외국민등록부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말소제도 도입, 등록기간 현실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외국민등록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올해 직업훈련소 2000개 개소 목표...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원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국내 인적자원 역량 강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현지 언론 콤포스 2019년 12월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12월 30일 중부자바주 끈달 지역 전국직업훈련소 준공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내년(2020년) 커뮤니티 직업훈련소 2000개를 늘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직업훈련소는 2017년 50개, 2018년 75개, 2019년에 1000개 지점 개소했다. 올해에는 작년 두 배인 2000개 개소가 목표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어

“또한 전국에 2만 9천개 뿐 산뜨렌(이슬람 전통 교육기관)도 운영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인적자원 역량 강화에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이다 노동장관, 위스누피마 창조경제관광장관 등도 배석했다.



박미숙 아세안문화원장 취임... 아세안 문화 소통 주력



힘쓸 것”이라며 “특히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아세안 문화를 알리는 데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KF에 몸을 담은 그는 인사·총무부장, 미디어사업부장, 경영기획실장 등을 거쳐 제2대 아세안문화원 원장에 선임됐다.
아세안 창설 50주년인 2017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개원한 문화원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아세안 10개국의 다양한 역사·사회·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기관이다.
[연합뉴스] 박미숙 신임 아세안문화원 원장 [KF 제공]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 산하 아세안문화원의 박미숙 신임 원장은 2일 취임식에서 “한-아세안 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문화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아세안문화원이) 국내 거주 아세안 출신자와 아세안에 관심 있는 인사간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도록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株式会社 三湖 株式会社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iler.com

PT. HANSHIN AIR COMPANY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eva-mendat
Giant EXPRESS
Best Quality
Fast Delivery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지난해 4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지난해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4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배차 앱 서비스와 전자상거래(EC)가 주도해 크게 비약했으며, 각종 전자 결제 수단의 폭발적인 보급은 국내의 핀테크(IT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에 대한 디지털 기술자의 부족이나 사이버 공격이 미래의 성장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의 IT 대기업 구글, 싱가포르 정부 계열 투자 회사 테마섹, 미국 베인앤컴퍼니의 3사가 발표한 동남아 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EC와 배차 앱 서비스는 고액의 투자 유입과 경쟁의 격화가 성장을 뒷받침해 2015~2019년 연평균복합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 각각 88%, 56%로 예측되고 있다. 다른 산업에서는 온라인 여행이 19%, 게임을 포함한 온라인 미디어가 56%로 예측된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내다보고 인도네시아에는 동남아시

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싱가포르 소재 벤처캐피털인 골든게이트 벤처스의 비니 로리아 창

한편 지난해에는 현금카드나 계좌간 거래에서 전자지갑까지 다양한 전자결제가 비약적으로 보급되었다.



업 파트너는 “세계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해도 국제 투자의 흐름이 멈추지는 않겠지만,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로부터 디지털 산업에 대한 투자를 받아 환경을 정비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몇 년 전에 비해 사업을 하기 쉬워졌기 때문에 염려할 것은 없어졌다”고 전했다.

국가 금융 포섭 전략에 관한 대통령령 ‘2016년 제82호’에 따라 재무부와 중앙은행(BI), 금융감독청(OJK) 등으로 구성된 국가 금융 포섭위원회(DNKI)가 2016~2018년까지 3년간 6,6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은행 계좌 및 핀테크 서비스 계정 등 금융 기관에 액세스하는 수단을 가진 국민의 비율은 지난해 55.7%에 달해 2016년의 35.1%에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

결제 서비스가 신장하고, 도시 젊은이의 58.7%는 일상적으로 전자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영 대형 은행 뱅크 락얏 인도네시아(PT Bank Rakyat Indonesia, 이하 BRI)에 따르면, 조사된 인도네시아인 1,500명 중 82.7%가 전자지갑에 대해, 또 62.4%가 디지털 투자 플랫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결과로 디지털 경제를 통해 ‘금융 소외 계층 포용(경제 활동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금의 유입과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이버 공격과 인터넷 사기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성장 속도에 비해 공격에 대한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사이버안전청(BSSN)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보고된 사이버 공격의 피해 건수는 사상 최고인 1,290만 건을 기록했다. 사이버 공격 건수는 매년 15%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청(OJK)은 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관여하거나 금융 산

업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강화를 호소하는 등 디지털 경제의 보호 대책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마다 증가하는 디지털 인재 수의 부족이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만 명의 디지털 인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인재 육성을 위해 구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EC 최대 기업 알리바바 그룹, 통신설비·기기 대기업 화웨이 등 디지털 기업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재연수 프로그램’을 차례로 전개하고 있다. 배차 서비스 대기업 고젝(Gojek)의 사후리 부사장(데이터 사이언스 담당)은 “60만 명에 이르는 인력 부족을 메워야 한다”며 “재연수 프로그램은 생존을 위한 방안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젝도 창업 지원을 다루는 미국 구글계 디지털아라야(Digital-araya)와 제휴하여 디지털 기술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프레쉬 오더

프레쉬오더 생산
스타일당 3~4개 컬러 1만장 이상
컨테이너 베이스
Mens/Ladies/Girls/Boys
캔슬오더/STOCK:대량수량매입
+62 858 1369 4992
6shg10@gmail.com
PT SHINHAN GLOBAL INDONESIA

“Bringing Eco Fashion Graphics to the World !”

A Leading Printing & Embroidery company

“BW를 비롯 Major buyer Audit 취득”



실리콘 / 줄 / 라바 및 각종 나염인쇄
듀얼 시퀀자수 / 시퀀자수 및 각종 자수
승화전사 / 스톤 / 비드 / 글리터 / 호일 작업
최신 설비 및 기계 완비.

(주) 제일 인도네시아

Bekasi Factory : Jl. Siliwangi Km. 9, Narogong, Kompleks Blue Bird, Bekasi
Subang Factory : Dusun Sidamukti, Wanakarta, Purwadadi, Subang
인니영업담당 : 장태선부장 (HP : 0812-5238-8871 / 021-8261-1020)
E-mail : tsjang02@gmail.com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